

# 大學生과 副業

沈 允 宗

(成均館大 社會學科 副教授)

## I. 學生副業의 類型과 特徵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란 말은 우리 나라에서 家庭敎師職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1980년도에 당시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던 課外工夫와 관련하여 家庭敎師職을 불법화시킴으로써 學生副業의 내용이 크게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현재 大學生들에게 副業을 알선해 주는 창구역할은 京鄕新聞社의 「大學生아르바이트銀行」이 대행하고 있다. 즉 이 銀行은 한편으로는 각 대학 부직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신청서를 접수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아르바이트 학생 추천의뢰를 접수한다. 그리고 난 후 추천의뢰를 해당 대학의 학생정원수에 비례하는 몫으로 각 대학에 할당한다.

大學生들이 하고 있는 副業의 種類는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즉 번역, 통역, 각종 사무 및 업무 보조, 야간경비, 건설현장의 보조원, 상품매달에서 회사의 비서 등 약 40여종에 이르고 있다.

表 1은 1982년도 學生副業 現況을 類型別로 나누어 집계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 量的으로 제일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職種은 사무보

조 및 업무보조, 안내, 조사업무, 방법대원이다. 그런데 사무보조 및 업무보조에는 상당수의 거리질서 확립 봉사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1983년도 1학기에 부업을 알선 받은 成大生 998명 중 447명(45%)이 거리질서 확립봉사원으로 일했다.

〈表 1〉 職種別 斡旋內容

| 직                      | 종 | 인원<br>(명) | 비율<br>(%) |
|------------------------|---|-----------|-----------|
| 사무보조 및 업무보조            |   | 2,957     | 28.7      |
| 안내 (은행장구 및 각종회의 등)     |   | 2,666     | 25.9      |
| 조사업무                   |   | 2,159     | 21.0      |
| 방법대원                   |   | 1,011     | 9.8       |
| 야간숙직 및 경비 (은행)         |   | 349       | 3.4       |
| 취로사업장 감독보조             |   | 470       | 4.6       |
| 해수욕장, 국·도립공원 안내, 관리    |   | 46        | 0.5       |
| 공사장 업무보조 (건설업체)        |   | 143       | 1.4       |
| 홍보요원 (은행, 기업)          |   | 198       | 1.9       |
| 모니터 (은행)               |   | 106       | 1.0       |
| 판매원                    |   | 54        | 0.5       |
| 번역, 통역                 |   | 40        | 0.4       |
| 도서관, 자료정리              |   | 32        | 0.3       |
| 편경, 차트                 |   | 21        | 0.2       |
| 해외공사장 (현대건설)           |   | 23        | 0.2       |
| 기타 (음식집, 예능개교사, 심판원 등) |   | 25        | 0.2       |
| 계                      |   | 10,300    | 100       |

자료: 大學生아르바이트 斡旋  
'82년도 事業實績 (京鄕新聞社)

〈表 2〉 斡旋處別 採用現況

| 알 선 처            | 인 원<br>(명) | 업체수 | 비율<br>(%) |
|------------------|------------|-----|-----------|
| 정부부처, 공공기관, 단체   | 4,994      | 39  | 48.5      |
|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 4,567      | 61  | 44.3      |
| 기업               | 720        | 44  | 7.0       |
| 기타               | 19         | 9   | 0.2       |
| 계                | 10,300     | 153 | 100       |

자료 : 大學生아르바이트斡旋  
'82년도 事業實績(京鄉新聞社)

한편 斡旋處別 採用現況을 보면 表 2와 같다. 즉 副業을 알선받은 전체 학생 가운데 49%가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44%가 금융기관 그리고 7%가 기업체에서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表 1과 表 2에 나타난 學生副業의 特徵을 보면 첫째, 아르바이트 학생의 거의 99%가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 부기나 통역 또는 번역 등과 같은 특수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둘째, 90%가 넘는 학생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副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관계당국이 중여지책으로 急造해 낸 副業이기 때문에 自生의인 것이 아니라 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일종의 「근로장학금」의 형식을 갖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特徵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과 아르바이트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나 회사 사이에 葛藤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에는 이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學生副業의 問題點

대학생들에게 학비조달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자립·자조 정신을 고취, 勤勞勉學風土를 조성하며 사회경험을 미리 체득, 實社會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키워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학생 아르바이트 제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 需要와 供給의 均衡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西歐에서와 같이 산업의 발달과 함께 경제사정이 매우 좋아지고 또한 이에 따라 完全雇傭이 실시됨으로써 인력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 곳에서는 學生들이 용이하게 副業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應募의 내우를 받으며 생활비를 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산업발달이 미진하여 아직 完全雇傭이 실시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수적인 면에서 단연 우세한 관계로 사회 자체가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여력이 없다. 따라서 需要와 供給 사이에는 엄청난 不均衡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더우기 과외금지 조치 이후에 家庭教師職의 수행이 법으로 금지됨으로써 상당수의 學生이 副業을 구하지 못하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不均衡을 더욱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1982년도 전체 대학생 60만명(4년제 대학) 중 아르바이트 희망자가 10~20%로 10여만명에 달하고 있었으나 교내외 副職을 합쳐 就業學生은 약 2만명으로 8만여명의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둘째, 副業의 官主導的 斡旋에서 오는 사용자와 아르바이트 학생 사이의 갈등현상을 언급할 수 있다. 과외금지 조치 이후 정부는 家庭教師職을 통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던 많은 학생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구제해 줄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왜냐하면 금지조치의 배경이야 어찌되었든간에 이 조치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학생이 대량으로 생겨났고, 이것은 이른바 학원불안울 조성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안해 낸 제도가 아르바이트銀行이다. 이 銀行은 가능한 한 많은 副業을 學生들에게 斡旋해 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學生副業에 대한 부단한 홍보활동과 이에 대한 호응의 촉구로 적어도 量的인 면에서는 상당수의 副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러한 副業이 質的인 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

게 만족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제공자에게도 불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大學生의 身分에 걸맞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배우를 해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하나의 실례로서 「사무보조」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은행창구 안내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학생의 입장에서서는 자기도 책상에 앉아서 고객을 상대로 하여 정식으로 은행 사무를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은행의 입장에서선 길어야 몇 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을 학생에게 고도의 정확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사무를 떠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창구에서 고객이나 안내하는 단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는 이러한 은행의 처사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기에서 양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특히 은행측에서는 大學生들에게 그나마 副業을 제공해 준 것을 시혜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지급되는 돈보다 훨씬 낮은 급여수준을 가지고서도 은행측에서 볼 때 더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求職者(예컨대 商高生)들을 선별하여 雇傭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나의 대표적인 例로서 은행의 경우를 소개했을 뿐이지 「사무보조」라는 이름으로 副業을 제공해 주는 모든 곳에서 이와 같은 葛藤이 팽배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했다기보다는 정부시책에 마지못해 호응하는 방향에서 학생들에게 副業이 제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학생들에게 단순노동이나 잡무 등의 일을 맡김으로써 여기에서 오는 부담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이고자 노력한다. 그런가 하면 學生들은 반대로 자신의 능력이나 현재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大學生이라는 특권의식에서 높은 보수, 특별한 대우를 원하고 있다. 사실 상품안내 및 판매, 조사 등의 밖으로 나다니는 아르바이트가 서류정리, 전화주문 접수, 고객안내 등의 사무실 잡무보다 근무조건이나 보수가 좋은 편이다. 그러나 이것

은 학생들에게 별다른 매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사용자측은 그들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제, 상당수의 아르바이트가 단기적이라는 점이다. 表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 期間이 1개월 미만인 것이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일 미만인 것도 5%에 이르고 있다. 이 10일 미만의 아르바이트 중에는 불과 1일 또는 몇 시간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 1개월 이상의 것은 63%에 이르지만, 장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3개월 이상은 불과 10%에 달할 뿐이다. 그런데 이 1개월 이상의 아르바이트 중에도 거의 절반이 「교통단속」, 「거리질서」, 「방범대원」의 범주에 속한다.

〈表 3〉 就業期間別 副職現況

| 기 간        | 인원(명)  | 비율(%) |
|------------|--------|-------|
| 6개월 이상     | 618    | 6.0   |
| 3개월—6개월    | 402    | 3.9   |
| 1개월—3개월    | 5,438  | 52.8  |
| 10일—1개월 미만 | 3,368  | 32.7  |
| 10일 미만     | 474    | 4.6   |
| 계          | 10,300 | 100   |

자료: 大學生아르바이트 斡旋  
'82년도 事業實績(京郷新聞社)

네제, 經濟的 動機에서 副業을 구하는 학생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成均館 大學校 社會學科는 작년 5월에 成大生 934명을 대상으로 하여 意識調査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현재 副業을 구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물었다. 그 결과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하고 있지 않다'(42%), '현재 구하고 있지 않지만 방학 때 구할 예정'(38%), '현재 구하고 있다'(11%), '현재 부업을 가지고 있다'(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57%가 앞으로 副業을 구할 예정이거나 현재 副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들 57%의 학생, 즉 542명에 대하여 副業을 가지고 있거나 구한다면 그 動機는 무엇

〈表 4〉 副業을 구하고 있는가의 여부

| 구 분                      | 인원   | 비율   |
|--------------------------|------|------|
| 구하고 있지 않다                | 392  | 42   |
| 현재 구하고 있지 않으나 방학에는 구할 예정 | 359  | 38   |
| 현재 구하고 있다                | 102  | 11   |
| 현재 부업을 가지고 있다            | 72   | 8    |
| 무응답                      | 9    | 1    |
| 계                        | 934명 | 100% |

자료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의식조사 (1983)

〈表 5〉 副業을 가지고 있거나 구할 때의 動機

| 구 분                     | 인원   | 비율   |
|-------------------------|------|------|
| 학자금(생활비포함)을 마련하기 위하여    | 167  | 31   |
| 용돈마련                    | 166  | 31   |
| 사회생활의 건문을 넓히기 위하여       | 120  | 22   |
| 희망 직종에 대한 사전 경험을 쌓기 위하여 | 16   | 3    |
| 자립정신을 키우기 위하여           | 56   | 10   |
| 기 타                     | 17   | 3    |
| 계                       | 542명 | 100% |

자료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의식조사 (1983)

이냐에 관하여 물었다(表 5 참조). 조사 결과에 의하면 31%가 '학자금(생활비포함)을 마련키 위해서'라고 대답하였고, 66%가 非經濟的 動機를 언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慶熙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가 작년도 1학년 학생 3,523명을 대상으로 하여 副業關係를 調査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앞으로 副業을 구하겠다고 대답한 학생의 20%가 經濟的 動機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생이 經濟的 動機에서 副業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물론 과외금지 조치 이후에 副業이 학자금 마련의 유일한 수단이며 되고 있다는 점에서 副業을 구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학생이 등록금 또는 생활비의 조달이라는 절실한 이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원한다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볼 때 副業이 갖는 또 하

나의 問題는 과연 副業이 극빈 학생들에게 經濟的으로 얼마만큼이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데 있다. 현재 학생들이 용역을 제공해 주고 받는 돈은, 그것이 일급이든, 주급이든 또는 월급이든간에 평균해 보면 대체로 하루 5천원 정도로 계산된다. 물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점심값을 포함해서 하루에 7천원 정도를 주고 있지만, 일반적인 평균치는 아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 副業의 3분의 1이 1개월 미만의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월 15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을 뿐이며, 한 사람이 비교적 조건이 좋은 副業에 1개월 이상 종사하는 것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副業으로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副業의 斡旋이 實績爲主의 형식주의로 끝난다는 점이다. 아마 각 대학으로부터 副業斡旋 現況을 보고받는 문교부의 관계자는 대 만족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대학이 예외없이 80~90%에 이르는 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斡旋해 준 것으로 보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의 副業斡旋率은 이보다 훨씬 낮다. 모든 大學이 같은 방법으로 副業斡旋에 임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개의 경우 副業希望者를 大學 스스로가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만약 모든 副業希望者에게 아르바이트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수요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이들 전부에게 副業을 斡旋해 준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년의 경우를 감안해서 부업신청자의 수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한다. 따라서 문교부에 보고되는 80~90%의 副業斡旋 實績은 이 제한된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된 수치이다. 현장에서 대두되는 문제야 어찌 되었든간에 우선 국민이나 학생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교당국은 계속해서 부업신청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학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이고 정력 낭비이며, 副業斡旋을 받지 못한 학생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들을 수 있는 지극히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副業의 여러 問題點을 고려했어서 이것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副業에 대한 學生들의 認識이 달라져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실 副業이 갖는 고유의 機能은 수단적인 것이다. 즉 학업이라는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學生들은 副業을 전공하는 학과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선택된 자로서의 특권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希望職種에 대한 사전경험을 쌓기 위해서 副業을 가지려고 하고 또한 副業의 種類가 대학생의 신분과 결맞지 않을 때는 이것을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副業은 전공과목의 실습을 위한 것도 아니요, 대학생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특혜적인 것도 아니다. 副業은 어디까지나 副業인 것이다. 노동이나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듯이 학생 아르바이트에 귀천이 있을 수 없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해 본 기업이나 공공기관, 단체 등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실하나 일부 학생들은 편한 일이나 요령만 피우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좀더 강한 자립심과 근로정신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그 다음 두번째는 장기적인 副業이 개발되어야겠다는 점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단기적인 副業은 학자금 마련이라는 전박한 사정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에게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참말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副業이 되려면 그것은 적어도 2개월 이상은 지속되어야 한다. 금년부터 여름방학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이 기간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학자금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産業이 長期副業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차원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크게 기대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국민자를 위

한 장학제도가 확충되어야겠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을 받는 목적은 知識의 習得이나 人性의 開發 등에 있겠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목적은 국민 모두에게 그들의 잠재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국가발전에 동참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결코 교육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 Ⅲ. 學生副業의 教育·社會學的 意味

대학생은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직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未完成의 人間이다. 그러므로 부단한 배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大學人의 知識習得이 규정된 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 커리큘럼 밖의 문제를 파고드는 당사자들의 知的 열정이 요구되는 것처럼, 人格形成의 場도 당사자들의 인간관계가 가족이나 학교, 친구집단의 범위를 넘어설 때 협소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볼 때 副業이 갖는 教育的이고 社會的인 意味는 무엇보다도 「豫備的 社會化」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副業을 통해 학교 밖의 社會와 접촉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社會를 알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당사자 개인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社會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해 봄으로써 학생은 책과 이론을 통해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社會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고, 社會는 大學人에게 일찍부터 社會라는 무대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가 社會人으로서 취해야 할 役割을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理論과 現實 사이에는 언제나 뛰어넘기 힘든 深淵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深淵을 건너갈 수 있는 架橋의 役割을 副業이 한다. 즉 학생들은 副業을 통해 現實을 배우게 되고, 그럼으로써 理論의 至高至善의 사고에서 탈피하게 된다. 어떤 종류의 副業이건 그것을 수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그 職業을 둘러싼 社會환경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환경이 자기들이 책에서 배운 理論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다. 이렇게 하여 理論은 반드시 實踐으로 구현되어야 하고, 現實은 반드시 理論的 모델 위에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도그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젊었을 때는 現實의 現實性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理論的 純粹性에 기대어서 사회를 비판적 안목에서만 관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副業의 豫備的 社會化的 機能은 높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勞動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해 본질적인 것도 드물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勞動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협동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勞動은 인간환경과의 교류라는 기본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人間的 環境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인관계의 폭이 가족집단이나 친구집단의 범위를 크게 넘지 못하는 학생들이 副業의 수행이라는 勞動行爲를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갖게 되고, 여기에서 타인의 기대를 의식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다듬어나간다는 것은 역시 훌륭한 豫備的 社會化的 한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또한 副業은 우리 社會를 裏面世界에서 파헤쳐 그 실상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는 계몽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중요한 教育的이고 社會學的인 意味를 가진다. 결국 副業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 社會의 부정적인 단면과 불합리성을 배우게 되고, 그럼으로써 社會改革의 필요성을 認識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세대간의 葛藤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革命的 發想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社會發展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달리 하는 세력들간의 對立과 葛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젊은이들의 社會改革의 意志는 그것이 기존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反文化的 형태로 발전하지 않는 한 포용되어야 한다. 젊은이는 역시 젊은이다와야 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라의 일부 政治人은 젊은이의 思考가 기성인의 것처럼 조속해져서 기존질서에 완전히 통합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루소가 「에밀」을 통해 역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장과정에 걸맞지 않는 早熟은 개인을 망치고 나아가서 社會를 타락시키며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